

The degree to which it is possible for individuals to find meaning in their lives may have to do with thei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explanation. What constitutes an explanation of this type _____ . An age which bases its religious beliefs and metaphysical or scientific view of the world on unquestioned or unquestionable certainties will certainly find answering questions as to why things are as they are rather more straightforward than will be for inhabitants of a time in which past certainties seem no longer sufficient to deal with what is known of the universe and mankind's place in it. In such an age, the laws of nature will be perceived to be less concerned with ends and purposes, than with processes and the observable and empirically verifiable regularities of the external world.

- ① is derived from an abstract, subjective implications about nature
- ② varies enormously when there is no agreement in the whole society
- ③ depends on whether religion and science can favorably interact or not
- ④ should necessarily be conditioned by the cultural context in which it is offered
- ⑤ should not be determined by any factors and, literally multiply infinitely without any limit

*본 문제의 저작권은 헛님쌤에게 있습니다.



햇 설

The degree to which it is possible for individuals to find meaning in their lives may have to do with thei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explanation.

개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하는 것은 설명의 개념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복잡한 글일수록 단순화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처음 등장한 소재는 '삶 속에서 의미 찾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가능하느냐 하는 것은 '설명'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이런 뜬구름 잡기 문장을 더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서 추가 정보를 얻어야 해요.

What constitutes an explanation of this type should necessarily be conditioned by the cultural context in which it is offered.

이런 유형의 설명을 구성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제공되는 문화적 맥락에 의해 조건지워짐에 틀림없다.

*'이런 유형의 설명'이란, 삶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겠죠. 매우 추상성이 높고 논리성을 필요로 하는 글일수록 지문 안에 있는 지시어를 이용해서 유기성을 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런 유형의 설명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 이런 유형의 설명을 구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을 말하며, 이는 그것(설명)이 제공되고 있는 그 문화적 맥락(즉, 사회)에 의해 결정된다(conditioned)고 했습니다.

*** 개인들이 삶의 의미를 어느 정도 까지 찾을 수 있는가는 그것에 관한 설명이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 그런데 그런 설명이 어떤 성질인가, 즉, 그 설명이 무엇으로 이뤄져있는가는 그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

100점의 Bible Hyper 빈칸추론 Reload #5

An age which bases its religious beliefs and metaphysical or scientific view of the world on unquestioned or unquestionable certainties will certainly find answering questions as to why things are as they are rather more straightforward than will be for inhabitants of a time in which past certainties seem no longer sufficient to deal with what is known of the universe and mankind's place in it.

종교적 신념들과 세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혹은 과학적 관점들을 의심되지 않는 혹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성들로 떠받들게 하는 시대는 왜 모든 것들이 지금의 모습인가에 관련한 질문들에 대해 과거의 확실성들이 우주와 그 속에서의 인류의 지위에 관해 알려진 것을 다루는데 더 이상 충분치 않게 여겨지는 시대의 거주자들에게 그러할 것 보다 매우 쉽게 답할 것이다.

*'종교적 신념들과 세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혹은 과학적 관점들'이라는 것은 결국 삶의 의미에 답하기 위한 설명들. 그런데 이런 설명이 '의심할 수 없는' 확실성들로 떠받들어지는 시대는 그런 확실성들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시대보다 더 쉽게 설명을 내뱉는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독해의 수준이 어디까지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지를 최대한 빨리 보고, 대략적인 대입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문화적 맥락'에 달렸다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복잡한 문장을 그저 '~한 시대'와 '~한 시대'가 다르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것이 어떤 시대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대별로 다르다는 것과 가장 근사한 말을 찾으면, 결국 사회별로 다르다는 것이고, 문화적 맥락에 달려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In such an age, the laws of nature will be perceived to be less concerned with ends and purposes, than with processes and the observable and empirically verifiable regularities of the external world.

그런 시대에는, 자연의 법칙들이 과정들과 외부 세계의 관찰 가능한 그리고 경험적으로 입증 가능한 규칙성들에 관련된 것 보다 결과들과 목적들에 덜 관련된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